

시론

‘마을 만들기’,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진호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지방 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약화하며,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제시되는 해법 중 하나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다.

살기 좋은 마을은 단순히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창의적 사업, 농업·관광업 육성, 지역 문화유산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다. 주민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마을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비전을 설계하고 함께 실현해간다. 마을은 이를 통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재탄생한다.

해남군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을 통해 400억여 원 예산을 확보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변화와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지난주 해남군농어촌협약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땅끝, 천년의 마을 콘서트’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여한 12개 마을은 각각의 마을의 현황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퍼포먼스와 공연을 통해 마을 재생의 핵심 동력인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단결하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줬다.

마을 주민 70여 명이 함께 만들어낸 공연 ‘오늘이 있기까지’는 마을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희망적인 미래를 다지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진 깃발 행진은 각 마을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보여주며,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날 마을마다 선보인 깃발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역사였고, 꿈과 비전을 담아낸 주민들의 결의였다. 깃발 아래 하나가 된 주민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색깔을 아우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깃발은 주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마을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결국과 연대의 상징으로, 함께 나아가는 걸음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서로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미래를 밝히고, 마을의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농촌협약은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이를 실행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협약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

생활거점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2020년 보성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나주, 화순, 장흥, 강진(2021년), 순천, 구례, 해남, 함평(2022년), 영암, 영광(2023년), 광양, 담양, 장성(2024년) 등 총 14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의 마을 재정비 프로그램(Dorferneuerung)이나 일본의 ‘마찌즈꾸리’처럼 농촌 재생과 공동체 강화에 초점을 둔 해외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독일과 일본의 예가 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정서적·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의 마을 만들기는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함과 절실함이 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시작점은 주민들이 함께 꾸민다고 노력하는 데 있다. 외부의 지원은 출발을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힘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서 만들어진다. 주민 주도의 변화 속에서 마을은 ‘비로소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탈바꿈한다.

깃발이 물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마을이 답했다. “천년의 미래를 향해.”

마을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주민의 참여는 핵심 요소다. 모처럼 일궈낸 주민 참여와 합의가 마을을 살리고, 천년을 향한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으로 이어질 기대한다.

자치칼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주민자치의식



서순복
품자주사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뤄진다. 단체자치는 자치분권의 원리를, 주민 자치는 주민주권 원리를 나타낸다. 주민자치는 주인으로서의 시민의식, 주민의식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의식과 역량이 필요하다. 내가 사는 마을과 지역사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을 주민이다. 무엇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질질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주민이다. 주민이 동 행정의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 행정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합의를 통해 마을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공공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기저에 바로 주민 자치회기 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관련한 정책 집행에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다. 정책 평가도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해야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시민 주체의식과 주민 주체역량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과 학습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는 시민 정치 교육이 필수라고 한다.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공수부대의 총칼 앞에서 시민들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켰다. 치안 부재 상황 10일 동안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누고 현혈을 했다. 모든 통신과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민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했다. 이른바 분수대 학습동아리 활동이었다. 피로 값주고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구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했었는데,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화의 제단에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 3·1만세운동과 5·18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나타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경험 이 있었기에, 무도한 정권에 의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0분에 자행된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군인들로부터 국회를 지키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5·18 이후에 태어난 어떤 이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 손으로 잡으면서 계엄군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5·18의 교훈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다고

논술훈을 적었다.

한강 작가는 80년 5월을 조명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썼다. 노벨문학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강은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꺼안으면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총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다. 마지막에 군인들이 물러갈 때는 마치 아들에게 하듯이 ‘잘 가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보았다’며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었다”고 했다. “젊은 경찰분들, 군인 분들도 내적 충동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숙성한 시민의식, 주민주체의식과 역량이 한 밤의 추위를 견디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로 잊그제 실제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국회의사당 앞으로 집결한 시민들은 한국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시민으로서 나왔다고 했다. 내가 사는 마을과 동네에서부터,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부터 자치와 자율의 훈련이 내재화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훈련장이요, 민주주의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지 않은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토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을 조율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훈련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다.

취재수첩

연말을 맞아 지방자치 취지를 되새겨 보자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연말을 맞아 지방자치 현상이 소란스럽다. 행정 추진과 예산 등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화장장 민간위탁과 직영을 놓고 대립하고, 나전철기, 목포대교 경관 조명 등 추진과 관련하여도 그렇다.

집행부와 의원들의 소신도 있지만, 이견의 배경에 대해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요즘 회자

되는 ‘답정너’도 있다. 답을 정해 놓고 추진한다는 말이다. 필자가 거론했던 글인데 믿지 못하는 데에 그 근원이 있다 하겠다. 편 가르기와 측근들의 개입설 등이 계속해서 거론된다. 유사 이래로 사화부조리나 부당함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은 그 부조리 등에 저항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뤄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함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가지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고(故)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다시 실현시킨 용기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방자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하리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가지 제안’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를 생각해 보자. 개인 차원이나 집단 차원에서나 자멸을 부르는 행동에 빠져들기 십상이라는 경고다.

오직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언론을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사소하지만 강한 용기가 필요하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정치권 민심 거역하지 말라

엄중한 시기, 이례적으로 토요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다. 세계 각국 또한 숨죽이며 지켜봤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때문이다. 결과는 자동 폐기였다. 여당 국민의힘 보이콧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 주변은 물론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 시민들의 분노는 거세졌고, 제2의 계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모범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히 훼손된다는 민심을 곱씹는 후진 정치의 민낯도 대내외에 알려지고 말았다. ‘오욕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다.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사유로 담겼다. 국회의 해체 요구안 가결로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이번 사태와 관련, 내란죄 혐의 고발이 잇따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게 모든 국민의 요구다.

여야도 의견이 다르지 않으나, 국민의힘은 역

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답화문을 내고 정국 수습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아닌 원외인 한 대표의 한계가 지적되고, 한 총리와 현 내각의 계엄 선포 가담 정황으로 미뤄 순탄할지는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제반 권한 행사에 대한 위헌 소지가 불가피하다. 계엄령이 타깃으로 삼은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 전제인데도 사실상 배척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의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유일한 법률 절차인 직무배제를 위해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통과 때까지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와 땀으로 수립된 민주주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무장한 계엄군에게 국회가 또 무참히 짓밟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강 노벨상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정책 주목받는다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에 나섰다. ‘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작가·출판사·도서관·지역서점·독자를 연결하는 책 생태계 구축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발족한 인문도시 광주위원회는 국민 종합독서율이 43%

12%로 모두 전국 평균을 뛰어넘었다. 지역 도서관은 731개로 공공도서관 30개, 작은도서관 362개, 대학도서관 18개, 학교도서관 309개, 장애인도서관 1개, 전문도서관 10개, 교정시설도서관 1개다. 시민들은 독서 매체별로 불태 종이책을 선호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책과 친한 인문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한강 작가도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 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에 대한 바람을 밝힌 바 있다. 광주는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은 문재학 열사다.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연구원 분석에서도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도시로 첫걸음을 내딛는 광주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연구원 발간한 ‘도서관·독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민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6.4권, 독서인구(1년 동안 독서를 한 적이 있는 사람)는 1인당 12.4권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각각 0.8권, 2.4권 낮은 수준이다. 반면 독서 선호도는 45.0점으로, 3.4점 높았다. 도서관 이용 경험도 25.4%로, 독서 활동 참여 경험은

이침묵은 詩 구명조끼

이정록



검정 고무신 꺾어 자동차 놀이 할 때, 각자 신는 게 달랐다. 명근이는 뒷발 훑을, 용육이는 마른 모래 한 고봉을, 정두는 나사와 부리진 망치 대가리를, 나는 풀꽃을 꺾어 넣고 언덕길을 달렸다. 정두는 공대를 나와 자동차 회사에 나가고, 명근이는 경운기 탕탕거리며 소를 키운다. 용육이는 막다른 골목까지 배달 도시락을 나르고, 나는 풀밭에 소리며 눈물 그렁그렁한 시를 읊는다. 그럴 줄 알았다면 할머니 금반지며 삼촌 주판알을 가득 채우고 부릉거리길. 하지만 흙탕물 채우고 소방차를 몰던 기합이는 저수지에 들어간 뒤 선 넘어까지 나오질 않는다. 시란 걸 쓰고 읽을 때마다 다니는 행간에 구명조끼가 있는지 두리번거린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암소의 마른 등, 그 등쪽에 기합이가 앉아 있는지를. (시집 ‘그럴 때가 있다’, 참비, 2024)

[시의 눈]

고무신을 꺾는다는 건 신을 포켓 때 한쪽신을 휘어서 다른 쪽신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모양이 되지요. 그렇게 놀던 약동들이 흙백기역 속에 있습니다. 고무신 자동차에 흙이나 돌, 풀 등을 싣습니다. 그리고 부릉부릉 소리 내며 끌기놀이를 하지요. 현대, 한 친구는 거기 흙탕물을 채우더니 나중 소방차를 몰았군요. 그는 홍수 때 사람 구하다 저수지에 빠져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구명조끼가 없던 게지요. 화자는 큰물질때 그가 흑시암소등에라도 올라타 있는지 두리번거립니다. 것처럼 시인에게도 주의할 일이 있지요. 시의 행간 구명조끼를 두었는지 살펴는 일입니다. 시가 독자를 읽고 익사할 직전 떠내려가는 암소등도 없다면 뭘 끝장이지요. 이정록 시인은 충남 홍성에서 나. 198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의자’(2006), ‘어머나학교’(201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2016)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을 담은 대상의 내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손등으로 훑어낸 그 문물을 받아 적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